



6월 12일  
토요일

#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축산정책과	과장	박도환	팀장	박진영	☎	286-6530
----	-------	----	-----	----	-----	---	----------

## 김영록 지사, 전국 최초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 방문

-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 축산 실천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당부 -

-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6월 12일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축산 농장’을 인증받은 해남군 소재 만희농장(대표 김소영·양만숙)을 방문하여 농장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으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전남도에는 총 36개소(한우 1, 젓소 3, 닭 32)가 있다.
- 해남군 북평면에 소재한 만희농장은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경영 농장으로서 한우 180두를 사육 중이며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하여 연매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1호 동물복지 한우농장’이다.
-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소영 대표와 함께 농장현장을 돌아보며, “요즘 소비자 들은 먹거리의 안전성 외에도 건강하고 윤리적인 축산물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 축산을 실천하여 고품질 축산물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한편, 전남도는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을 309개소 지정하였으며 1,666농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등 동물복지와 환경친화형 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별첨】 도지사님 현장방문 사진